

#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동체 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 연구 : 성취가치의 매개효과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Korean Youth's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and Community Sense Using Latent Growth Model  
: A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Values

오민아(Min-Ah Oh)<sup>1</sup>, 조혜영(Hye-Young Jo)<sup>2\*</sup>

<sup>1</sup>Department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p>2</sup>Center for Excellence in Learning and Teaching, Soonchunhyang University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Korean youth's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and community sense mediated by achievement value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ree years of the longitudinal panel data (2011-2013)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Data were collected from 2,351 first year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 using SPSS 18.0 and AMOS 22.0. The main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decreased and community sense increased as time passed. These results supported the linear change model. Second, the initial statu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had effects on the initial status and change rates of community sense. Achievement values, the partial mediator, had a positive influence on initial community sense but had a negative influence on change rates of community sense. We discussed how to improve Korean youth's community sense based on these results.

---

▲주제어(Key words) : 사회적 위축 및 우울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공동체 의식(community sense), 성취가치 (achievement values), 잠재성장모델 (latent growth modeling: LGM)

## I. 서론

우리나라는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과도한 도시화 현상과 산업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불균형 및 핵가족화로 인한 대인관계를 통한 협력 학습 기회의 상실 등과 같은 사회적 특성은 공동체 기능을 약화시켰다. 우리 교육 역

시 경쟁의식을 조장하여 타인보다 더 높은 성취를 가져야 한다는 등의 능력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는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학교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 위주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이 비교적 활발히 수행되는 것은 이러한 체험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M. Chiessi,

---

• 본 논문은 2016년 한국가정관리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Hye-Young Jo, Center for Excellence in Learning and Teaching, Soonchunhyang University, 22, Soonchunhyang-Ro, Asan-Si, Chungnam, 31538, Korea, tel: +82-041-530-1642, E-mail: johyey@hanmail.net

E. Cicognani, & C. Sonn, 2010; J. F. Zaff, O. Malanchuk, & J. S. Eccles, 2008),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하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은 개인이 속한 집단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유대감과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공통된 의식을 의미한다. G. Y. Kang and Y. M. Jang(2013)은 개인이 지리적 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에서 구성원과 함께 지니고 있는 가치관, 윤리관, 정서, 감정을 공동체 의식이라 하였으며, D. W. Mcmillan and D. M. Chavis(1986)는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를 '구성원 감정(membership)', '상호영향 의식(influence)', '욕구의 충족과 통합(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및 '공유된 정서적 연계(shared emotional connection)'로 밝히며 집단 구성원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연대의식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은 타인 혹은 공동의 자원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해지는 등의 원만한 사회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공동체 의식이 희박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지역 내 개인의 참여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고립감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특정 수준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속한 공동체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되므로(K. J. Park, 2008) 다양한 환경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또래 친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덕목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UNICEF, 2006), HRI(2014)가 공동체와 사회자본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4%가 공동체 의식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공동체 의식 약화의 주된 원인으로 '물질만능주의(35.2%)'와 '개인주의(24.3%)', '지나친 강요(20.6%)', 및 '혈연·지연·학연(11.1%)'을 꼽았다. 한편, 공동체 의식에 대한 2012년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6%가 '우리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나, 2013년도는 37.1%, 2014년도는 29.2%에 그쳤으며, 전체 84.5%가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Macromill Embrain, 2015). 이러한 결과에 더하면 경제적 양극화와 빈부 격차의 심화가 공동체 의식의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중학생은 발달단계상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학교공동체 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Y. J. Song, D. H. Kim, & S. S. Lee, 2015). 하지만 최근 입시부담과 성취압력 등 인지적 사고만을 강조하는 한국의 교육은 공동체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 A. Joo(2007)는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또래 간의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서 공동체의 역할을 약화시켜 소속감과 협력 부족 등 공동체 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높은 학업부담감과 성취압력은 낮은 공동체 의식으로 이어지지만(Y. J. Dong, M. A. Jeon, & Y. H. Kim, 2012) 우리 사회의 경쟁적 교육분위기와 인지중심적 경향이 강한 중등교육의 특성상 공동체 의식 함양에 어려움이 따른다. 청소년들의 초기 경험은 성장하는 과정에서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L. J. Crockett & A. C. Crouter, 2014) 우리 사회의 중학교 청소년들의 실제 공동체 의식이 변화하는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치열한 입시경쟁을 통하여 전반적인 공동체 의식이 저하되었다면 개인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생활을 공유하는 친구들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안감과 학업부담감, 또는 경쟁에서 뒤처질 것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보았을 때 청소년들의 정서 및 정신적 병리현상이 개인의 문제로 떠올려질 수 있다. 실제로 Youth Counseling and Support Center(2012)가 보고한 청소년 개인상담 사례 통계치에 따르면 총 2,965건의 사례 중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례가 그의 20.5%를 차지하였고 그 가운데 청소년의 우울과 위축문제가 43%에 해당하였다.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정서문제에 해당하는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며(M. Pelkonen, M. Marttunen, & H. Aro, 2003) 이들은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킨다고 보고된다(Y. R. Woo, & C. R. Nho, 2014).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렵고 이는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진다(C. H. Caldwell, M. A. Zimmerman, D. H. Bernat, R. M. Sellers, & P. C. Notaro, 2002). 특히 S. J. Cho et al.(2001)은 15-18세 청소년의 경우 우울 발생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시기임을 밝힌 바 있고 K. R. Choi(2010)는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문제와 친구관계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들이 학업문제로 인해 정신적인 병리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M. Boivin, S. Hymel, & W. M. Bukowski, 1995)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S. Bayram Özdemir, C. S. Cheah, and R. J. Coplan(2015)은 새로운 환경에서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고립시키는 행동이라 정의한 바 있다. 즉 사회적 위축은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소극적이며, 위축되어 있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우리사회에서 학업에 대한 높은 기대와 강요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박탈하여 사회적 위축을 비롯한 사회문제로 확산되어 나타날 수 있다(J. W. Yang, J. H. Kim, & K. J. Oh, 2006). 즉, 사회적인 위축이 지속될수록 관계형성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고립시키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된 정서문제로 정의한 후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가정한 뒤 이들이 공동체 의식 제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취가치는 학생 스스로 학습이 인생과 미래의 직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수행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로 자신의 학습이 충분히 가치롭다고 여겨질 때, 그 과업에 열정을 갖게 되어 효율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취가치가 높은 아동은 관계 속에서 원만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 J. Woo, 2014). 학습활동 참여, 학교규칙 준수,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가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Y. J. Cho & S. G. Han, 2015). 이는 성취가치가 학업 및 관계의 성공여부와 관련되는 중요한 예측변인이라고 주장한 A. Wigfield and J. S. Eccles(199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은 개인의 행동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데 B. Y. Kim and E. B. Chang(2015)은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은 성취가치와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성취가치가 내재화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편 H. J. Lim and J. C. Kim(2014)은 청소년의 높은 성취가치는 높은 학업성취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긍정적인 학교적응으로 이어져 성취가치가 학업 뿐만 아니라 학교공동체 적응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성취가치가 청소년들의 활동참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본다면(H. Patrick, A. M. Ryan, & A. Kaplan, 2007),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고 공동체 의식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성취가치는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 기대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M. Chiessi et al., 2010; Y. J. Dong et al., 2012; G. Y. Kang & Y. M. Jang, 2013; H. B. Park, 2016; J. F. Zaff et al., 2008).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A. N. Cho, E. K. Lee, & M. k. Jang, 2016; Y. J.

Song et al., 2015; Y. R. Woo & C. R. Nho, 2014). 하지만 공동체 의식이 환경에 의해 변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K. J. Park, 2008)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변화를 추적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청소년 개인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공동체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중시하는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취가치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우리사회의 높은 교육열은 청소년들의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경쟁적 학업분위기는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하는 것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한다.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 부재는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의 신념을 고취시켜 집단따돌림, 고립, 외로움 등 문제행동을 야기하여 사회적 문제로 확산시킨다. 이에 따라 높은 교육열이 개인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기보다 바람직한 성취가치의 성장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공동체 의식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한국 사회의 교육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 시기에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정서문제인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동체 의식 변화양상과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성취가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경로와 성취가치의 매개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선행연구 결과에 터하여 중학생의 높은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은 공동체 의식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지만, 성취가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을 완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도모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중학생의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성취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시에, 성취가치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동체 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고, 성취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공동체 의식 증진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동체 의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가?

둘째,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취가치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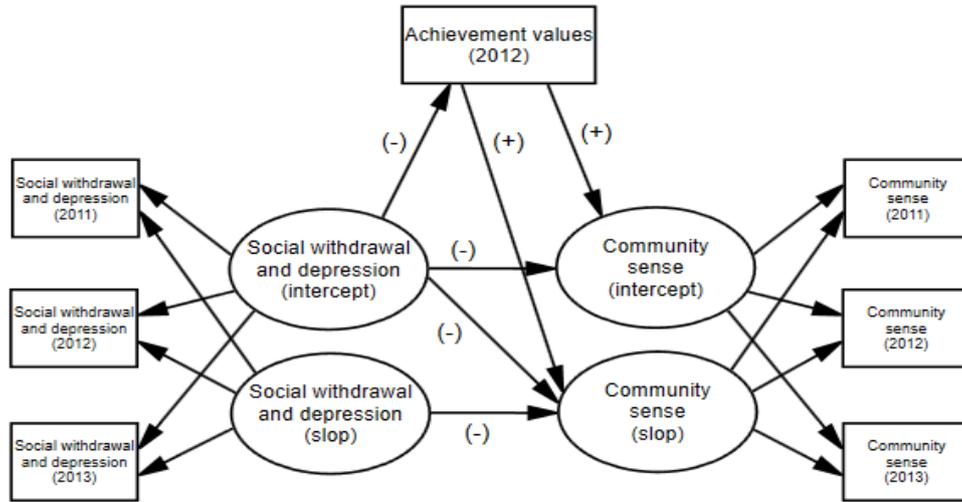


Figure 1. Theoretical Model among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Achievement values and Community sense by adolescents

Table 1. Demographics of the Participants

	Range	time-point 1(2011)		time-point 2(2012)		time-point 3(2013)	
		frequency(%)	N	frequency(%)	N	frequency(%)	N
Gender	boy	1,152(50.5)	2,280	1,140(50.5)	2,259	1,075(51.0)	2,108
	girl	1,128(49.5)		1,119(49.5)		1,033(49.0)	
state of health	very healthy	679(28.9)	1,746	725(32.1)	2,256	652(30.9)	2,108
	healthy	1,390(59.1)		1306(57.9)		1,310(62.1)	
	not healthy	188 (8.0)		207(9.2)		137 (6.5)	
	not very healthy	23 (1.0)		18 (.8)		9 (.4)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가운데 2-4차년도(2011-2013) 조사에 응답한 중학교 1학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패널 데이터 수집상 발생하는 다양한 결측치에 대한 일괄적 처리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결측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의 인구배경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2011=50.5%, 2012=50.5%, 2013=51.0%)와 여자(2011=49.5%, 2012=49.5%, 2013=49.0%)가 비교적 동일한 비율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변인인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2011=59.1%, 2012=57.9%, 2013=62.1%)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사회적 위축 및 우울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S. H. Kim and K. Y. Kim(1998)이 사회적 위축을 측정한 문항과 K. I. Kim, J. H. Kim, and H. T. Won(1984)이 우울을 측정한 척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보완한 문항 가운데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S. H. Kim and K. Y. Kim(1998)은 사회적 위축을 알아보기 위하여 6문항(예: '행동이 서투르고 어색하다', '묻는 말에 항상 늦게 대답한다', '동작이 느리다', '자주 공상에 빠진다',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을 사용하였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중복문항(예: '동작이 느리다'와 '움직이려하지 않는다'의 문항을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를 싫어한다'의 문항으로 처리함)를 삭제한 후 5문항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K. I. Kim et al.(1984)은 간이정신진단검사를 통하여 우울을

13문항으로 알아본 반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3 문항을 제외(예\_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허무한 느낌이 든다', '기분이 울적하다')한 후 총 10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독립된 변수이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정신건강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우울과 위축 문제였음을 감안한다면 동일한 입시 경쟁 문화와 학업적 압박 하에 있는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우울과 위축문제가 일정 정도 동일한 차원에서 취급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실제로 2차년도 자료를 통하여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을 수행한 결과 도출한 스크리드표와 제1요인이 설명한 총 분산이 44.9%를 보임으로써 일차원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T. H. Kang, H. Y. Jo, & M. A. Oh(201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4점 척도로 구성된 사회적 위축(5문항) 및 우울(10문항) 측정 문항을 역채점한 후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이 높다고 해석하였고 이들의 평균점수를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의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위축 및 우울 척도의 연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2차년도(2011) .910, 3차년도(2012) .918, 4차년도(2013) .904로 나타났다.

### 2)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H. W. Kwon(2004)이 사용한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6문항, '민주적 질서와 절차' 6문항, '합리적 의사 결정' 6문항, 및 '실제 사회 참여' 6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보완(예\_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동체 의식 측정 문항은 총 4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공동체 의식의 연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2차년도(2011) .774, 3차년도(2012) .815, 4차년도(2013) .756으로 나타났다.

### 3) 성취가치

성취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M. H. Yang(2000)이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84문항을 S. Y. Kim(2006)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동기조절의 구성요인으로 '숙달목적지향성' 2문항, '자아효능감' 7문항, '성취가

치' 7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보완(예: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학교생활은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취가치는 총 7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가치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 형성된 성취가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고학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어(G. Heo, 2014)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도에 조사된 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 는 .889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8.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빈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사회적 위축 및 우울, 성취가치, 공동체 의식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를 제시하였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신뢰도를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종단연구의 패널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결측치는 EM algorithm으로 처리하였으며,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여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동체 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에서 성취가치의 매개효과를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 이하 LGM)으로 분석한 후,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매개변인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동체 의식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X^2(df)$ , RMSEA(LO/HI), NFI, TLI, CFI, SRMR을 살펴보았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기 앞서 2-4차년도(2011-2013) 조사에서 선정된 사회적 위축 및 우울, 성취가치, 공동체 의식 변인들의 각 시점에 따른 평균(M)과 표준편차(SD),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및 Pearson의 상관관계

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위축의 평균(M)은 2차년도 부터 3차년도까지는 증가하고 있으나, 2차년도에 비해 4차년도에 감소하는 경향(M=2.08, M=2.12, M=2.06)을 보이고 있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중학생들의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의 평균(M)은 2차년도 부터 4차년도 까지(2011-2013)는 증가추세(M=2.72, M=2.83, M=2.98)로 나타났고, 성취가치의 평균(M)은 2.91점으로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측정변수들의 각 시점에 따른 평균(M)값만으로는 변화추이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연구의 자료가 정규분포를 가정하는지 여부를 왜도와 첨도 값을 확인하여 살펴본 결과 왜도 값은 -.387 부터 .088로 나타났으며, 첨도 값은 -.188부터 .940으로 -2 부터 2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이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음이 입증되어 정규분포임을 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2-4차년도(2011-2013)까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성취가치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공동체 의식(2011-2013) 변인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도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위축 및 우울(2011, 2012, 2013)과의 상관이 매년 -.072( $p<.01$ ), -.072( $p<.01$ ), -.074( $p<.01$ )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성취가치(2012)와는 .221( $p<.01$ )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2012년도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위축 및 우울(2011, 2012, 2013)과의 상관이 매년 -.097( $p<.01$ ), -.144( $p<.01$ ), -.136( $p<.01$ )으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성취가치

(2012)와는 .318( $p<.01$ )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2013년도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위축 및 우울(2011, 2012, 2013)과의 상관이 매년 -.103( $p<.01$ ), -.111( $p<.01$ ), -.189( $p<.01$ )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성취가치(2012)와는 .219( $p<.01$ )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1.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동체 의식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본 연구에서는 2-4차년도의 3년 동안 시간 추이에 따라 조사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동체 의식 변인들의 중단적 변화양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취가치의 매개효과를 중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LG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무변화 모형은 조사시점에 따라 초기값 노드를 1, 1, 1과 같이 파라미터(parameter)를 제한하였으며, 선형변화 모형은 초기값 노드(node)를 1, 1, 1과 같이 파라미터(parameter)를 제한한 반면, 변화값 노드(node)는 측정간격이 동일한 각 시점에 따라 0, 1, 2과 같이 0부터 시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1만큼 증가시켜 살펴보았다.

<Figure 2>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동체 의식 변인의 무변화 및 선형변화 모형에 대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합도 지수와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정확적합을 위한  $X^2$  값이 작고 확률값이 크면( $p>.05$ ) 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하지만,  $X^2$  값은 N 값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 과대 추정되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Table 2. Correlations,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of variables

(N=2,351)

Variables	1-①	1-②	1-③	2-①	3-①	3-②	3-③
1.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①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2011)	1						
②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2012)	.471**	1					
③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2013)	.481**	.518**	1				
2. Achievement values							
① Achievement values(2012)	-.094**	-.103**	-.132**	1			
3. Community sense							
① Community sense(2011)	-.072**	-.072**	-.074**	.221**	1		
② Community sense(2012)	-.097**	-.144**	-.136**	.318**	.388**	1	
③ Community sense(2013)	-.103**	-.111**	-.189**	.219**	.369**	.389**	1
M	2.08	2.12	2.06	2.91	2.72	2.83	2.98
SD	.571	.592	.522	.582	.591	.589	.491
skewness	.088	-.040	-.136	-.387	-.149	-.167	-.030
kurtosis	-.178	-.188	-.157	.602	.610	.610	.940

\* $p<.05$ , \*\* $p<.01$

적합도 지수에 근거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해야 한다. 절대적합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표본크기에 민감한  $X^2$  값의 한계를 위해 개발된 지수이며 .10이하일 때 보통 적합하다 판단한다. 충분적합지수인 TLI(tur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이라 해석한다. 그리고 절대부합도지수인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05이하일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동체 의식의 무변화와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우선 사회적 위축 및 우울 선형변화 모형의  $X^2$  값이 24.603( $d.f=1,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RMSEA는 .10로 나타나 보통 적합도로 나타났지만(M. W. Browne & R. Cudeck, 1993) NFI는 .985, TLI는 .958, CFI는 .986으로 나타났으며, SRMR은 .0015로 나타나 선형변화 모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의식 모형의  $X^2$  값이 2.326( $d.f=1, p=.127$ )으로 나타났으며, RMSEA는 .024, NFI는 .997, TLI는 .996, CFI는 .999로 나

타났으며, SRMR은 .0002로 나타나 무변화 모형에 비해 적합도 지수가 개선되어 선형변화 모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동체 의식 변인은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갖는다.

$$y = \beta_0 + \beta_1 \lambda_t + \epsilon$$

( $\beta_0$ : 초기 값,  $\beta_1$ : I번째 중학생의 기울기 값,  $\epsilon$   $\lambda_t$ :

측정 주기의 기울기 계수 값, : residual 또는 error)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동체 의식 변인의 선형변화 모형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외생변인인 사회적 위축 및 우울 초기값 (Intercept)의 평균은 2.098이고, 분산은 .195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회귀식을 바탕으로 외생변인인 사회적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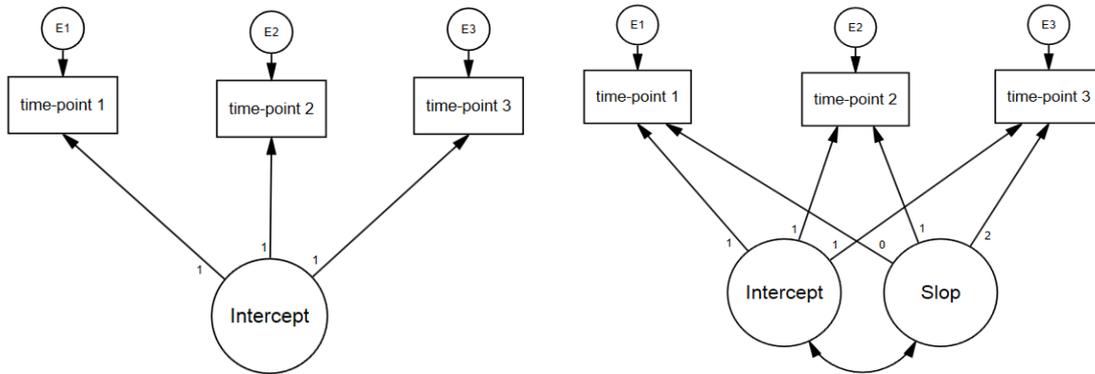


Figure 2. Baseline growth models

Table 3. Model fit of LGM

variable	Model	$X^2(df)$	RMSEA(LO/HI)	NFI	TLI	CFI	SRMR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no change model	49.803***(4)	.070(.053/.088)	.970	.980	.973	.0199
	linear model	24.603***(1)	.100(.068/.136)	.985	.958	.986	.0015
Community sense	no change model	439.661***(4)	.215(.199/.233)	.527	.647	.530	.0336
	linear model	2.326(1)	.024(.000/.065)	.997	.996	.999	.0002

\* $p<.05$ , \*\*\* $p<.001$

Table 4. Estimate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on the linear model

variable	Means		Variances		Intercept, Slop of covariances
	Intercept	Slop	Intercept	Slop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2.098***	-.015**	.195***	.023***	-.026(SE=.006)***
Community sense	2.712***	.131***	.163***	.016**	-.028(SE=.007)***

\*\*\* $p<.001$

축 및 우울 평균 추정값을 살펴보면, 2.098+-.015(I-1)을 통하여 2차년도(2011년)에 2.098, 3차년도(2012년) 2.083, 4차년도(2013년) 2.068로 조사에 참여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은 매년 -.015씩 낮아지고 있으며, 평균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은 다양하게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이 높은 중학생은 초기값(Intercept)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이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보다 천천히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내생변인인 공동체 의식 초기값(Intercept)의 평균은 2.712이고, 분산은 .163으로  $p<.01$ 과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공동체 의식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생의 교우 관계를 평균 추정값의 회귀식 2.712+.131(I-1)을 통하여 2차년도(2011년)에 2.712, 3차년도(2012년) 2.843, 4차년도(2013년) 2.974로 조사에 참여한 중학생의 공동체 의식은 매년 .131씩 높아지고 있으며, 평균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중학생의 공동체 의식은 다양하게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 의식이 높은 중학생이 낮은 중학생보다 초기값(Intercept)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높은 중학생이 낮은 중학생보다 초기값(Intercept)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보다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고, 반대로 보다 천천히 공동체 의식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분산의 초기값(Intercept)이 .163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중학생의 공동체 의식 수준에서 개인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중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투입하여 살펴볼 필요가 제기되었다.

2. 사회적 위축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취가치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취가치의 매개효과 LGM으로 구조적 관계의 경로 계수를 살펴보기 전에 검증모형의 적합도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검증모형의  $X^2$  값이 89.741( $d.f=11,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RMSEA는 .055, NFI는 .971, TLI는 .951, CFI는 .974로 나타났으며, SRMR은 .0234로 나타나 종단자료 특성을 양호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LGM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LGM의 경로계수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이  $p<.001$ 과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위축 및 우울 초기값은 성취가치( $\beta =-.203, p<.001$ )와 공동체 의식의 초기값( $\beta =-.110, p<.01$ ), 공동체 의식의 변화값( $\beta =-.291, p<.01$ )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1년 자료에 의해 확인된 사회적 위축 및 우울 수준의 초기값이 높았던 응답자는 2011년의 공동체 의식 수준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사회적 위축 및 우울 수준의 초기값이 높았던 응답자들의 공동체 의식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의 변화값은 공동체 의식의 변화값( $\beta =-.642, p<.001$ )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낮아지고 공동체 의식은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이 보다 미미하게 낮아진 응답자의 경우 공동체 의식도 보다 미미한 정도로 높

Table 5. Verification of Model Fit Statistics

Model Fit	$X^2(d.f)$	RMSEA(LO/HI)	NFI	TLI	CFI	SRMR
Value	89.741 <sup>***</sup> (11)	.055(.045/.066)	.971	.951	.974	.0234

<sup>\*\*\*</sup>  $p<.001$

Table 6. LGM's Path coefficients

	Path	B	$\beta$	S.E.	C.R.	p	statistical significance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_intercept	Achievement values(2012)	-.275	-.203	.033	-8.246	***	$p<.001$
	-> Community sense_intercept	-.099	-.110	.032	-3.112	.002	$p<.01$
	Community sense_slop	-.054	-.291	.019	-2.889	.004	$p<.01$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_slop	-> Community sense_slop	-.385	-.642	.108	-3.56	***	$p<.001$
	Achievement values(2012)	.250	.378	.020	12.602	***	$p<.001$
	-> Community sense_slop	-.030	-.220	.011	-2.724	.006	$p<.01$

\*  $p<.05$ , \*\*\*  $p<.001$

아졌다고 볼 수 있다.

성취가치(2012)는 공동체 의식의 초기값( $\beta=.378, p<.001$ )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동체 의식의 변화값( $\beta=-.220, p<.01$ )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가치가 높은 청소년들이 공동체 의식 수준이 초기부터 높았고 높았던 공동체 의식 수준은 이후에 큰 값으로 변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LGM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위축 및 우울 초기값은 성취가치(2012)에 직접적( $\beta=-.203$ )으로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 의식 초기값에 직접적( $\beta=-.110$ ), 간접적( $\beta=-.077$ )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 의식 변화값에 직접적( $\beta=-.291$ ), 간접적( $\beta=.045$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의 변화값은 공동체 의식의 변화값에 직접적( $\beta=-.642$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가치(2012)는 공동체 의식 초기값에 직접적( $\beta=.378$ )으로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 의식 변화값에 직접적( $\beta=-.220$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관계에서 성취가치가 초기값과 변화값에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이 공동체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성취가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LGM으로 분석한 결과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동체 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고, 성취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공동체 의식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주요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은 감소하였으며, 공동체 의식은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의 정서문제는 초기 개입이 중요한 만큼, 상담서비스와 청소년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개별적 어려움을 파악하여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일차적인 환경 요인인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양육은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

Table 7. LGM'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Achievement values(2012)			-.203*		-.203*
Community sense_intercept	<-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_intercept	-.110*	-.077*	-.187*
Community sense_slop			-.291*	.045*	-.203*
Community sense_slop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_slop	-.642*		-.642*
Community sense_intercept	<-	Achievement values(2012)	.378*		.378*
Community sense_slop			-.220*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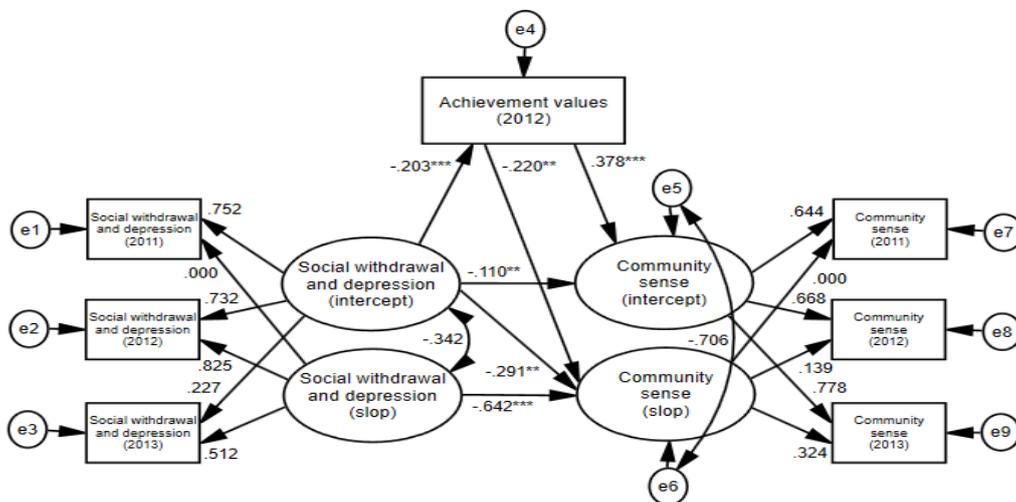


Figure 3.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of the cross-domain latent growth model

으로 나타난 만큼(H. S. Kim & J. M. Lee, 2016), 담임 교사는 학부모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청소년기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역할, 태도 등을 상세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학교수준이 높아질수록 공동체 시민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한 T. J. Kim, M. A. Oh, and Y. H. Lee(2015)의 연구를 고려해 보았을 때 한국 청소년의 낮은 공동체 의식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대상으로 사료된다. 예컨대 학생들이 학교에서 타인과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배울 기회가 낮아지고(UNICEF, 2006), 한국의 경우에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입시로 인한 경쟁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교육(44.2%)’이 필요함을 밝힌 HRI(2014)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현장에서부터 또래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수행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의 초기값과 변화값은 공동체 의식 초기값과 변화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성취가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성취가치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완화하여 공동체 의식의 초기값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반면, 공동체 의식의 변화값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가치가 공동체 의식의 변화값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유는, 성취가치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공동체 의식의 초기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공동체 의식 수준은 공동체 의식이 초기 수준이 낮았던 이들에 비하여 급격한 수준으로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아지진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기 공동체 의식의 중앙값인 3.75를 기준으로 이보다 이하인 응답자를 ‘초기 공동체 의식 하 집단(그래프의 점선 해당)’으로 명명하고 3.75 이상인 경우를 ‘초기

공동체 의식 상 집단(그래프의 실선 해당)’으로 명명하여 3개년 동안의 공동체 의식 수준의 궤적을 살펴본 결과 <figure 4>와 같았다. 초기 공동체 의식 수준이 낮았던 응답자의 공동체 의식 수준이 다른 집단의 응답자에 비하여 보다 급격하게 올라갔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성취가치가 매개변인으로서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의 성취가치가 개인의 정서문제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부정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Y. Kim and E. B. Chang(2015)이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우울이 높을 경우 진로정체감이 낮았으나 성취가치가 높을 때는 우울이 높더라도 성취가치가 낮을 때보다 진로정체감 수준이 보다 더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정서적 문제가 공동체 의식이라는 다른 발달 영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성취가치가 이를 조절한다는 점이 이들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성취가치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가치롭게 여기는 정도로, 성취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습의 이유를 경쟁에서의 승리와 같은 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학습 자체에서 찾을 가능성이 크다. 학습에 관하여 이러한 가치 의식을 지닌 청소년이라면 비록 경쟁위주의 학습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신과 함께 하는 학습공동체를 자신이 이겨야 하는 상대로 인식하진 않을 것이다.

S. H. Jung and S. E. Yang(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중학생에 비하여 학습의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고 학업성취 수준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큰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발달단계가 높아질수록 학습 과정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 학습 결과에 따른 외적 보상에 더 큰 가치를 둔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발달수준이 높아져도 학습에 대한 가치가 왜곡되지 않을 수 있는, 즉 바람직한 성취가치 수준을 가질 수 있는 교육여건이 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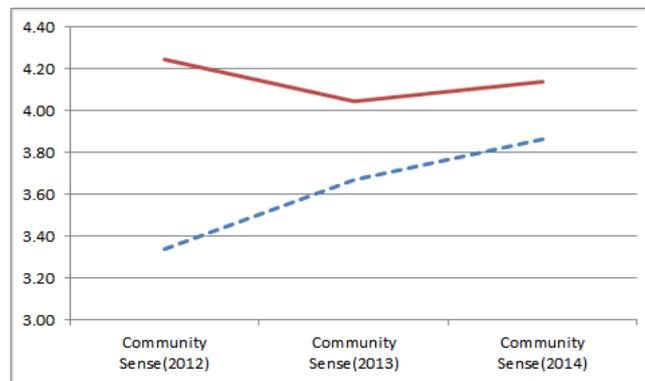


Figure 4. The trajectory of community sense over three years

적으로 조성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평가를 지양한 절대평가체제의 성취평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하여 협동학습체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성취평가제는 기존의 상대평가를 통하여 단위 학교내 동일 학년 학습자를 성적순으로 서열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제로 학습자가 이수한 성취수준에 비추어 절대평가를 지향하는 평가체제이다. 하지만 현재 중등학교에서 기존의 상대평가와 성취평가가 동시에 시행되고, 실제 대입에는 상대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성취평가제가 지향하는 경쟁을 넘어, 학습자의 행복을 지향하는 가치체제로 실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M. Son et al., 2015). 향후 이를 위하여 공교육 평가체제에 대한 확고한 결단과 정책적 실천이 요청된다.

셋째, 성취가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성취가치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완화하여 공동체 의식의 초기값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반면, 공동체 의식의 변화값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가치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다양한 동아리 활동 및 체험활동은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M. Chiessi et al., 2010; J. F. Zaff et al., 2008) 청소년들이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들의 인식을 개선시켜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동체 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고, 성취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이들의 공동체 의식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에 따른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동체 의식 변인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대체적으로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식이 낮게 조사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줄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지만, 외현화 문제행동 역시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각각의 변인이 공동체 의식과의 종단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의 시도는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상대적 영향력에 따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LGM 분석에 있어서 성취가치는 학습습관에 있어 보다 안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시간불변 변수(time-invariant variable)로 가정하였지만, 조사의 시점이

증가한다면, 성취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외변인이 많을 수 있으므로 시간가변 변수(time-variant variable)로 설정하여 분석한다면, 요인의 성장곡선에 따른 매개효과를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Bayram Özdemir, S., Cheah, C. S., & Coplan, R. J. (2015).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multiple forms of social withdrawal in Turkey. *Social Development, 24*(1), 142-165.
-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M. (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on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765-785.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Beverly Hills, CA: Sage.
- Caldwell, C. H., Zimmerman, M. A., Bernat, D. H., Sellers, R. M., & Notaro, P. C. (2002). Racial identity, matern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3*(4), 1322-1336.
- Chiessi, M., Cicognani, E., & Sonn, C. (2010). Assessing sense of community on adolescents: Validating the brief scale of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s(SOC-A).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3), 276-292.
- Cho, Y. J., & Han, S. G. (2015). An analysis of student and parent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Education Assignment Institute, 21*(2), 117-144.
- Cho, S. J., Jeon, H. J., Kim, M. J., Kim, J. K., Kim, S. U., Lyoo, I. K., & Cho, M. J. (2001).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the adolescents in an urban area in Korea.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0*(4), 627-639.
- Cho, A. N., Lee, E. K., & Jang, M. k. (2016).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andom activities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40*, 201-226.

- Choi, K. R. (2010). The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academic performance and peer factor on adolescents'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8(6), 95-111.
- Crockett, L. J., & Crouter, A. C. (2014). *Pathways through adolescence: Individual development in relation to social contexts*. Philadelphia: Psychology Press.
- Dong, Y. J., Jeon, M. A., & Kim, Y. H. (2012). Effects of achievement pressure and entrance-exam burden on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Moderating effect of parent's support.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9(2), 101-119.
- Heo, G. (2014). The effects of attainment value on achievement with focusing on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10(2), 113-126.
- Joo, C. A. (200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communit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Idea*, 21(1), 201-224.
- Jung, S. H., & Yang, S. E. (2011). The influences of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adolescents' self-discrepancies on academic achievement motiva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3), 23-37.
- Kang, G. Y., & Jang, Y. M. (2013). A study on sense of community of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0(1), 97-123.
- Kang, T. H., Jo, H. Y., & Oh, M. A. (2013). A study on the use-realitie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5(3), 521-541.
- Kim, S. Y. (2006).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internet activities, self-control,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Korea.
- Kim, B. Y., & Chang, E. B. (2015). Influence of social withdrawal on career identity: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and accomplishment value through depressive symptom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7), 31-52.
- Kim, S. H., & Kim, K. Y. (1998).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16(4), 155-166.
- Kim, K. I., Kim, J. H., & Won, H. T. (1984). *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eoul: Chungang Aptitude Research Institute.
- Kim, H. S., & Lee, J. M. (2016). The effect of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ocial withdrawal : The mediator effect of ego-resilience.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34(3), 77-88.
- Kim, T. J., Oh, M. A. & Lee, Y. H. (2015). A study on measurement of Korean youth competency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II: ICCS 2016. Sejong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Kwon, H. W. (2004). *A study on the democratic citize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Korea.
- Lim, H. J., & Kim, J. C. (2014).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ttainment value, self-regulatory strategies, achievement, and academic adjustment for middle school students: A moderating effect of self-resil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6), 161-190.
- Macromill Embrain. (2015). *Trend Monitor 2015*. Retrieved September 29, 2016 from [https://books.google.co.kr/books?id=PxNwBgAAQBAJ&pg=PA320&lpg=PA320&dq=%EA%B3%B5%EB%8F%99%EC%B2%B4+%EC%9D%B8%EC%8B%9D+%EC%A1%B0%EC%82%AC&source=bl&ots=yi6hTXPCci&sig=zLsahWVIHNlmZjCpr\\_iT8BXDgko&hl=ko&sa=X&ved=0ahUKEwiv4r2sx7TPAhWCKJQKHwYzBS4Q6AEIPzAH#v=onepage&q=%EA%B3%B5%EB%8F%99%EC%B2%B4%20%EC%9D%B8%EC%8B%9D%20%EC%A1%B0%EC%82%AC&f=false](https://books.google.co.kr/books?id=PxNwBgAAQBAJ&pg=PA320&lpg=PA320&dq=%EA%B3%B5%EB%8F%99%EC%B2%B4+%EC%9D%B8%EC%8B%9D+%EC%A1%B0%EC%82%AC&source=bl&ots=yi6hTXPCci&sig=zLsahWVIHNlmZjCpr_iT8BXDgko&hl=ko&sa=X&ved=0ahUKEwiv4r2sx7TPAhWCKJQKHwYzBS4Q6AEIPzAH#v=onepage&q=%EA%B3%B5%EB%8F%99%EC%B2%B4%20%EC%9D%B8%EC%8B%9D%20%EC%A1%B0%EC%82%AC&f=false)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Park, H. B. (2016).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adolescents' the sense of commun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K. J. (2008). Direction of ethics education for enhancing community spirit: In search of application possibilities of inquiry community. *Journal of Ethics and Philosophy Education*, 10, 23-38.
- Patrick, H., Ryan, A. M., & Kaplan, A. (2007). Early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classroom social environment, motivational beliefs, and enga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1), 83-98.
- Pelkonen, M., Marttunen, M., & Aro, H. (2003). Risk for depression: a 6-year follow up of Finnish adolescenc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7(1), 41-51.

- Son, M., Seo, M., Park, J. I., Kim, Y. & Lee, H. (2015). *Analysis of implementing achievement standards-based assessment in high schools and the directions for its improvement*. Seoul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Song, Y. J., Kim, D. H., & Lee, S. S. (2015). The relation between peer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s in adolescents during a transition period: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63(2), 207-231.
- UNICEF (2006). *Comparing child well-being in OECD countries: Concepts and methods*. Retrieved September 29, 2016, from [https://www.unicef-irc.org/publications/pdf/iwp2006\\_03\\_eng.pdf](https://www.unicef-irc.org/publications/pdf/iwp2006_03_eng.pdf)
- Wigfield, A., & Eccles, J. S. (1992).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task values: A theoretic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2(3), 265-310.
- Woo, S. J. (2014). The effects of undesirable parenting behavior, children's peer relationship and self-regulated learning on children's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3(5), 759-771.
- Woo, Y. R., & Nho, C. R. (2014).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solidarity between emotional and aggressive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2), 203-227.
- Yang, M. H. (2000).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J. W., Kim, J. H., & Oh, K. J. (2006). Selective attentional bias for negative emotional faces in social anxiety: Comparison of three age group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1), 237-255.
- Youth Counseling and Support Center (2012). *2011 Counseling trend analysis report*. Seoul: Youth Counseling and Support Center.
- Zaff, J. F., Malanchuk, O., & Eccles, J. S. (2008). Predicting positive citizenship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The effect of a civic context. *Applied Development Science*, 12(1), 38-53.

Received: November 15. 2016

Revised: January 25.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7